

제1교시

국어 영역



[1~2] 다음은 교내 방송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VSBS 최고 인기 프로, ‘미리 배우는 글로벌 매너’ 시간입니다. 오늘 명사 초청 시간에는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바로 우리 학교 7회 졸업생이신 외교관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외교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행자: 짬을 내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초청에 흔쾌히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교관: 별말씀을요! 후배들이 불러만 주시면 저는 언제든 달려올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정겹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는 사실 글로벌 매너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오늘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A] 외교관: 글로벌 매너와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른 다양한 규칙과 지식들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매너의 기본 원칙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합리적 실용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식탁에서 후추병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팔을 길게 뻗어서 가져오려고 하기보다는 옆 사람한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매너입니다. 직접 하려다 보면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거든요.

진행자: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영국 여왕이 청나라 고위 인사를 위해 마련한 만찬에서, 청나라 인사가 식탁에 놓인 손 씻는 물을 먹는 물로 오인해서 마셔 버렸답니다. 자칫 어색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여왕은 당황한 기색 없이 똑같이 그 물을 마셨고, 그 결과 만찬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서 볼 수 있는 여왕의 모습 역시 배려라고 할 수 있을까요?

[B] 외교관: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상대를 배려하는 매너죠. 사실 사고 활동은 50% 이상이 식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글로벌 매너의 절반은 식탁 매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사교 모임에서는 식사 자체보다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때 흔히 하는 실수로, 입안에 음식을 넣은 채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금물이죠.

진행자: 대화에서 상대방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에 대한 청취자의 질문도 꽤 있었습니다. 호칭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C] 외교관: 네, 좋은 질문입니다. 상대가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호칭으로 불러 주는 것이 매너의 기본입니다. 흔히 상대를 정중하게 대한다고 ‘Mr.’를 붙여 “Mr. Johnson”, “Mr. Thomas” 등으로 부르곤 하는데, 글로벌 무대에서 그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은 친한 사이일수록 Mr. 없이 이름(first name)을 부르는 것이 관습화되었거든요.

진행자: 그렇군요. 또, 서양 사람들은 대화를 나눌 때 ‘Thank you.’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D] 외교관: 잘 보셨습니다. 글로벌 매너에서는 말로 표현하지 않은 마음으로 서로 통하기를 바라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나 사과 등의 표시는 미소나 표정으로만 하기보다는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상대가 배려를 베풀었다면 지위 고하,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Thank you.”라고 말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1.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이나 태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독서를 통해 얻은 배경지식을 대담에 활용하고 있다.
- ② 진행자는 청취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
- ③ 진행자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일화를 소개한 후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④ 외교관은 진행자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외교관은 사례를 들어가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모두 설명하고 있다.

2. <보기>는 위 대담을 들은 방송부 선배가 진행자에게 조언한 내용이다. <보기>를 참조할 때, [A]~[D]에 대하여 진행자가 발언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상대방의 말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거나 핵심을 다시 언급하여 발언 내용을 제대로 알아들었음을 드러내는 것도 좋은 진행 방식이야.”

- ① [A]: “상대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것이 글로벌 매너의 기본이라는 말씀이죠?”
- ② [B]: “글로벌 매너를 익히려면 무엇보다 우선 식탁 매너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 ③ [B]: “사교 모임에서 대화에 동참하지 않고 식사에만 집중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겠군요.”
- ④ [C]: “겸손의 미덕을 중시하는 우리의 전통이 국제 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겠군요.”
- ⑤ [D]: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 싶으면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져야겠군요.”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작문 일지]

얼마 전 신문에서 청소년 성인병이 심각하다는 기사를 보았다. 기사를 통해 성인에게만 발병될 것으로 생각했던 심장 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이 청소년에게도 흔히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기사를 본 다음 날 친구들에게 기사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니 대다수의 친구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 이에 교지에 청소년 성인병에 관한 글을 게재하여 학교 친구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공론화함으로써, 친구들이 청소년 성인병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성인병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썼다.

(나) [학생의 초고]

일반적으로 ‘성인병’으로 분류되는 심장 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은 주로 40세 이상 성인에게 발병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47,000여 명의 청소년이 성인병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 성인병은 대개 만성 ㉡성인병이 이어지며 그 치료가 쉽지 않고 합병증 위험도 높다. 또한 치료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 사회적 부담을 증대시킨다.

청소년에게 성인병이 발병하는 원인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식습관의 측면에서는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과 당류의 잦은 섭취, 채소류 섭취 부족 등을 그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69.6g에 달하는데 이는 세계 보건 기구의 권장 섭취량인 50g을 ㉢넘어 초과한 것이다. 생활 습관의 측면에서는 운동 부족으로 인한 신체 활동량 감소,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부족, 불규칙한 생활 등을 성인병 발생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신체 활동량 감소,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로 신진대사의 균형이 깨져 성인병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식습관에 유의해야 한다. 지방이 많은 육류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아야 하며, 당류가 많이 함유되어 칼로리 수치가 높은 식품의 섭취를 피해야 한다. 또한 균형 있는 식단을 짜서 채소류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 생활 습관의 측면에서는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습관을 길러 신체 활동량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취미, 여가 활동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운동과 취미, 여가 활동 시간을 갖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심장 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청소년과 무관한 질병이라고만 여겨서는 안 된다. 잘못된 식습관과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성인병은 청소년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경각심을 갖고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소년 성인병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한 것에서, 작문은 공동체의 담론을 형성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② 통계 자료를 활용해 논지를 전개한 것에서, 작문은 글감과 관련된 자료에서 내용을 생성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③ 주장의 실현에 따른 사회적 효과를 언급한 것에서, 작문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표현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④ 청소년 성인병의 원인을 제시한 후 예방 방안을 제시한 것에서, 작문은 내용 구성 방법을 고려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⑤ 청소년 성인병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내용을 제시한 것에서, 작문은 집필 목적을 고려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7. 초고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① **신문 기사**  
초·중·고교 학생들의 비만율이 2008년 11.2%에서 2010년 14.3%, 2012년 14.7%, 2014년 15%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어릴 때 비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나타낸다.
- ② **전문가 인터뷰**  
연구 결과 비만 환자 또는 과체중자로 분류되는 청소년들의 나트륨 섭취량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체중 증가를 유발하고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의 발병률을 높입니다. 청소년의 나트륨 섭취는 주로 피자, 치킨 같은 즉석식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① ①을 활용하여, 넷째 문단에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가 청소년 성인병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화한다.
- ② ②를 활용하여, 둘째 문단에 식습관 측면의 성인병 발병 원인으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추가한다.
- ③ ②를 활용하여, 셋째 문단에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 여가 활동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구체화한다.
- ④ ①, ②를 활용하여, 첫째 문단에 청소년 성인병의 발병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담의 증대 양상을 구체화한다.
- ⑤ ①, ②를 활용하여, 첫째 문단에 청소년 성인병의 발병률 추세를 추가하고 둘째 문단에 나트륨 과다 섭취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추가한다.

8.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주어와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인식되어 왔다’로 고친다.
- ② ㉡은 조사를 문맥에 맞지 않게 사용했으므로 ‘성인병으로’로 고친다.
- ③ ㉢은 단어의 의미가 중복되고 있으므로 ‘초과한’으로 고친다.
- ④ ㉣은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리고’로 고친다.
- ⑤ ㉣은 글의 핵심 논지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9~10] 다음은 여행 소감문을 쓰기 위한 활동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상황]

특정 소재에서 연상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행 소감문을 작성함.

[소재 활용 방안]

- 배낭: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제시한다. .... ㉠
- 풀꽃: 평소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것을 통해 느낀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 ㉡
- 장터: 도시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고 느낀 감상을 드러낸다. .... ㉢
- 송아지: 어린 시절 자신이 살았던 고향에 대한 정다운 추억을 제시한다. .... ㉣
- 간이역: 바쁘게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제시한다. .... ㉤

[학생의 초고]

얼마 전 길을 걷다가 대학생 형누나들이 배낭을 메고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각양각색의 배낭을 보면서 문득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일었다. 그렇게 떠난 여행이 환상선 기차 기행이었다. 새벽에 출발해 경상북도 일대 간이역들을 도는 환상선 기차는 추전역에서 한 시간 남짓 정차하였다.

기차에서 내려 걷다 보니 아름다운 정취를 더하는 이름 모를 풀꽃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풀꽃들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새삼스레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풍경을 감상하는 사이 기차길 반대쪽에는 동네 사람들이 직접 가꾼 나물이나 간단한 먹거리를 팔기 위한 장터가 열렸다. 어느새 승객들은 그곳으로 몰려가 있었다. 승객들과 흥정하는 마을 사람들의 구수한 사투리 등 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장터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푸근해졌다. 장터를 잠시 구경하고 역 너머의 산길로 발길을 옮겼다. 길가에 매인 송아지가 한가롭게 풀을 뜯는 산촌의 풍경이 나를 아늑히 감싸고 있었다. 새들의 날갯짓 소리, 마른 가지들이 움트는 소리, 얼음장 밑으로 물이 흘러가는 소리 등 정다운 시골의 정취가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이처럼 간이역은 각박한 현실에 쫓기지만 말고, 숨도 들이쉬고 하늘도 천천히 감상할 시간을 가지란 듯이 우리에게 속삭인다. 하지만 이러한 속삭임을 앞으로는 듣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비둘기호 열차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간이역들이 점차 문을 닫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9. [A]의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쓰고 스스로 점검한 내용이다. 초고의 마지막에 추가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초고의 마지막 문단이 완결되지 않은 것 같아 내용을 보충해야겠어. 비유를 활용해 간이역이 사라지는 아쉬움을 전하고, 간이역 보존의 필요성을 이끌어 내는 문장을 추가해 글을 마무리해 보자.

- ① 최근 한 시인이 전국의 간이역을 소재로 쓴 보석 같은 시들을 담은 시집을 출간하여 세간에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처럼 간이역은 문학, 미술 작품의 제재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보존해야 한다.
- ② 작고 아름다운 간이역들이 없어지는 것은 정들었던 친구가 떠나는 것처럼 매우 섭섭한 일이다. 바쁜 생활에 얽매어 지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휴식을 제공하는 역할만으로도 간이역은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 ③ 최근 지자체에서 간이역을 문화재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이 불 일어나듯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전통 건축물로서 간이역은 당대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 ④ 간이역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밤하늘에 보이는 별이 적어지는 것처럼 서운한 일이다. 간이역은 각종 유물을 전시하고, 산촌 어린이들에게 도서를 제공하는 등 박물관, 도서관으로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할 필요가 있다.
- ⑤ 한때 철거 위기까지 몰렸던 간이역이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각 지방 자치 단체는 관광을 목적으로 과거에 사용했던 간이 의자와 난로, 역무실 등을 재현하는 간이역 복원 공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11.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제시한 것은?

<보 기>

단어를 두 조각으로 나눌 때 그 각각의 구성 요소를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나무꾼’을 직접 구성 성분으로 분석하면, 어근 ‘나무’와 접사 ‘-꾼’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접 구성 성분이 어근과 접사로 나뉘는 단어를 파생어라고 한다. 파생어 중에 접미사가 결합해 만들어지는 것은 ㉠ 품사가 달라지는 문법적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와 ㉡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   |           |           |
|---|-----------|-----------|
|   | ㉠         | ㉡         |
| ① | 덧개, 지혜롭다  | 바느질, 업히다  |
| ② | 덧개, 업히다   | 바느질, 지혜롭다 |
| ③ | 지혜롭다, 업히다 | 덧개, 바느질   |
| ④ | 바느질, 지혜롭다 | 덧개, 업히다   |
| ⑤ | 바느질, 업히다  | 덧개, 지혜롭다  |

12. <보기 1>의 ㉠에 대해 탐구한 것을 <보기 2>를 활용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음운 변동은 보통 음운과 음운이 만날 때 일어나는데, 음운이 다른 음운과 만나지 않더라도 음절 내의 특정 위치에 놓이면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가령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가지만 올 수 있다는 규칙이다. 이외의 자음들이 음절 끝에 오게 되면 이것들 중 하나로 바뀌게 된다.

<보기 2>

- 꽃[꼐], 꽃이[꼬치], 꽃망울[꼐망울]
- 앞[압], 앞에[아페], 앞이머[압니머]

- ① ‘꽃[꼐], 앞[압]’을 통해 ㉠의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꽃이[꼬치], 앞에[아페]’를 통해 ㉠이 일어나지 않고 연음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꽃망울[꼐망울], 앞이머[압니머]’를 통해 한 단어 안에서 ㉠와 함께 또 다른 음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꽃[꼐]’과 ‘꽃이[꼬치]’를 비교해 보면 ㉠는 단어와 단어가 만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앞에[아페]’와 ‘앞이머[압니머]’를 비교해 보면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 18항을 소개한 내용이다. ㉠~㉤에 추가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들 적 ..... ㉠  
놀다: 노니 논 눕니다 노시다 노오
2. 어간의 끝 ‘ㅅ’이 줄어들 적 ..... ㉡  
긋다: 그어 그으니 그었다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들 적 ..... ㉢  
까맣다: 까마니 까말 까마면 까마오
4. 어간의 끝 ‘ㄷ, ㅌ’가 줄어들 적 ..... ㉣  
따르다: 따라 따랐다
5. 어간의 끝 ‘ㅂ’이 ‘ㅌ’로 바뀔 적 ..... ㉤  
맷다: 매워 매우니 매웠다

- ① ㉠: 둥근, 어지시다
- ② ㉡: 나아, 지으니
- ③ ㉢: 동그라면, 하얗
- ④ ㉣: 고파, 나갔다
- ⑤ ㉤: 가까워, 쉬웠다

14. <보기>의 설명과 사례를 토대로 국어의 사동문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문장의 주체가 스스로 동작이나 행위를 행함을 나타내는 문장을 주동문이라고 하며, 주어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떠한 동작이나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을 사동문이라고 한다. 사동문은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의 접미사가 결합된 사동사에 의해 실현되기도 하지만 ‘-게 하다’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주동문	사동문
㉠	영희가 문 뒤에 숨었다.	내가 영희를 문 뒤에 숨겼다.
㉡	아이가 옷을 천천히 입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천천히 입혔다.
㉢	동생이 놀이터에서 울었다.	철호가 동생을 놀이터에서 울렸다.
㉣	우리는 동양사 책을 읽었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동양사 책을 읽히셨다.

- ① ㉠, ㉢은 자동사에 사동 접미사가 결합된 사동사를 활용해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 ㉣은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에서 부사어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 ㉣은 ‘-게 하다’와 결합한 사동문으로 바꾸면 문장의 의미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은 모두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은 모두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주동문에 없던 새로운 주어가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ㅅ·세·존·사: 일 ㉠ 술·보리·니萬·면理: 리外·외사 ㉡: 일·이시·나  
 ㉢ 눈·에·보·는·가·너·기·스·복 ㉣ 쇼·셔  
 ㅅ·세·존·사: 말 술·보리·니千·천·載·적·上·쌍·사: 말·이시·나  
 ㉤ 귀·예·들·는·가·너·기·스·복·쇼·셔

- 「월인천강지곡」 -

[현대어 풀이]  
 세존의 일을 말할 것이니, 만 리 밖의 일이시지만 눈에 보는 듯이 여기소서.  
 세존의 말씀을 말할 것이니, 천 년 전의 말이시지만, 귀에 듣는 듯이 여기소서.

- ① ㉠에는 ‘일’을 듣는 대상을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쓰였군.
- ② ㉡에는 ‘세존’이 높여야 할 대상임을 고려하여 사용한 선어말 어미가 있군.
- ③ ㉢과 ㉣에는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다른 부사격 조사가 쓰였군.
- ④ ㉣은 현대 국어의 표기를 참조할 때, 현대 국어에서는 단모음화가 진행되었군.
- ⑤ ㉤의 ‘ㅅ’은 현대 국어의 ‘의’처럼 관형격 조사로 쓰였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문맹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21세기 문맹자는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다. 국민 마음을, 소비자 마음을, 가족과 동료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어야 소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통은 ‘예스(Yes)’를 이끌어 내는 설득력의 기반이 된다.

[A] 글은 약속된 기호로서 읽지만 마음은 약속된 게 없다. 그래서 마음을 읽기 위해선 소통을 통해 숨겨진 설득 지점, 즉 킬링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 소통은 곧 발신과 수신자의 교환이다.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선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즉 ‘발신’을 잘 하면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물론 내 의견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 전달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잘 수신하는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설득은 고사하고 오해만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B]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3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한다. 집중을 하지 못하면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깜빡 놓치는 상태’가 반복된다. 그리고 그것은 말하는 이에게 공허한 마음이 들게 한다. 그러나 스스로 ‘먼저 들어 주는 사람’이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듣고 있다가 적절한 곳에서 맞장구를 쳐 주고 그 화제가 무르익을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식 질문을 하는 것이다. “대단하시군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하는 식이다.

위의 예시처럼 내 말을 잘 들어 준 사람, 내가 후련하게 말을 할 수 있게 해 준 사람에게는 무의식적인 호감이 생긴다. 대화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기꺼이 그의 얘기를 들으려 하고 그의 얘기에 설득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태도를 읽는 것도 마음 읽기의 중요한 단계이다. 즉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 메시지를 읽는 것이다. ‘대화 중 상대를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었느냐’라는 질문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과는 언어적 표현(7%)보다 비언어적 표현(93%)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무의식 중에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제스처나 표정 등 비언어적인 것을 혼합해 총체적인 해석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잘 활용한 것이 정치인들의 손동작이다. ㉠ 케네디의 자신감 넘치는 손동작은 클린턴에서 오바마로 벤치마킹\* 되었다.

그렇다면 태도를 읽는 눈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먼저 로맨틱 코미디처럼 비언어적 표현이 다양한 DVD를 골라 자막을 없애고 볼륨을 끈 채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해 본다. 소리와 함께 볼 때는 보지 못했던 많은 단서들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스토리 전개상 중요한 장면은 몇 번이고 반복해 보아도 좋다. 배우들의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얼마나 세세한 내용까지 파악이 가능한지 스스로 놀라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반복 훈련하면 태도를 읽는 눈이 밝아지게 된다.

잘 듣기와 태도 읽기는 정치인이나 CEO들이 홍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적용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그들이 경쟁력 있는 홍보 콘셉트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소통된다는 느낌이 있어야 비로소 ‘예스’를 이끄는 것이 가능해진다. 설득의 귀재가 되고 싶다면 마음을 움직이는 비밀 지점, 킬링 포인트를 먼저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먼저 대화 수신 능력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 벤치마킹: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량 기업이나 조직의 장점을 도입해 기준으로 삼는 경영 전략.

16.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신을 조리 있게 잘 하는 사람은 대개 수신에도 능한 편이다.
- ② 말을 잘 들어 준 사람은 상대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 ③ 상대를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통해 설득 지점을 찾아야 한다.
- ④ 상대의 태도를 읽는 눈은 반복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다.
- ⑤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 메시지를 읽는 것도 마음 읽기의 중요한 단계이다.

17. 윗글을 참조할 때, <보기>의 사례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1965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리처드 파인먼은 수상식 참석을 거부했다. 스웨덴까지 갔다 오면 시간 손실이 많아 연구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노벨 위원회가 아무리 설득해도 파인먼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그러던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수상식에 불참하면 기자들이 몰려와 진을 치고 이유를 물을 텐데, 그러면 당신의 연구 시간을 더 뺏길 수도 있다.”라는 부인의 말이었다. 시간을 덜 뺏기도록 노력하겠다는 노벨 위원회 측의 메시지보다 오히려 시간을 더 뺏길지도 모른다는 부인의 한마디가 설득력이 컸던 것이다.

- ① ‘부인’은 비언어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고 보아야겠군.
- ② ‘부인’은 파인먼을 설득하기 위한 킬링 포인트를 정확히 짚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부인’은 ‘노벨 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파인먼의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노벨 위원회’가 설득에 실패한 것은 파인먼의 이야기를 귀담아듣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⑤ ‘노벨 위원회’는 ‘부인’에 비해 파인먼에게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제한되었다고 보아야겠군.

18. 논지의 흐름으로 보아 [A]와 [B]를 이어 주는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러면 마음 읽기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
- ②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태도를 읽어 낼 수 있을까.
- ③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잘 수신할 수 있을까.
- ④ 그러면 발신을 잘 하기 위한 선결 과제는 무엇일까.
- ⑤ 도대체 왜 상대방의 수신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

19. ㉠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케네디는 다른 사람의 태도를 읽는 안목이 남달리 뛰어났다.
- ② 케네디의 손동작은 그의 정치적 입지 구축에 큰 보탬이 되었다.
- ③ 오바마는 정치인으로서의 케네디의 역사적 위상을 부러워하였다.
- ④ 오바마는 평소 언어적 메시지보다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중시하였다.
- ⑤ 오바마는 케네디의 손동작을 모방하여 케네디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약을 개발하는 일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며, 자칫하면 막대한 개발비를 들이고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해 제약 회사들은 시장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책정하여 자신들의 특허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제약 회사들이 신약의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게 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약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게 된다. 서민들이 신약의 약값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

시장 경제 체제의 측면에서 보자면 신약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한 제약 회사가 약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비싼 가격의 약을 구입할 수가 없으므로 신약이 개발된다 한들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결국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제약 회사와 육체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약이 필요한 저소득층 사이에는 갈등이 ㉠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질병 앞에서조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적 구도가 선명하게 ㉡ 두드러지고 있는 셈이다.

질병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볼 때, 이런 불평등한 구도가 비단 신약의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문제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제약 회사들이 약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전략을 ㉢ 쓰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약이 얼마나 불평등한 구도 속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지에 대해 놀라게 된다. 의학자인 레이 모이니헌과 앨런 커셀스는 저서를 통해 ‘제약 회사들이 병을 만들어서 약을 팔고 있다.’라고 고발하였다. 그 책은 제약 회사의 판매 전략의 실상을 파헤치고 있어 ‘질병 산업에 대한 충격 보고서’라고 불린다.

이 책에 의하면, 제약 회사의 판매 전략은 ‘정상을 비정상적으로 규정하라’로 요약될 수 있다. 병(病)의 사전적 의미는 ‘생물체의 전신이나 일부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현상’이고, 약(藥)의 사전적 의미는 ‘병이나 상처 따위를 고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하는 물질’이다. 그러나 제약 회사들은 이런 ‘병’의 사전적 의미에 멈추지 않고 ‘병’의 범위를 전략적으로 ㉣ 넓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에는 어김없이 경영상의 이익이 결부되어 있다. 질병이 아닌 것을 질병으로, 정상인 것을 비정상적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한 가지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제약 회사의 약품 개발 노력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의심하고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약 회사들의 노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인간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수명 또한 연장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약 개발 방향을 정하고 개발된 신약의 가격을 책정하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 없애지 못한다면, 제약 회사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질병 산업’을 되풀이할 뿐이고, 인류는 고질적인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 밑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약 회사의 사회·문화적 책임  
- 신약 가격 책정 및 신약 개발 과정을 중심으로
- ② 제약 회사가 벌이는 질병 산업의 미래  
-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 강자 우선주의
- ③ 제약 회사에 의해 야기되는 불평등 구조  
- 신약 가격 책정과 판매 전략을 중심으로
- ④ 제약 회사가 만들어 낸 다원적 사회 현상  
- 수명 연장의 효능과 불평등 구조의 병폐
- ⑤ 제약 회사의 경영 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색  
- 신약 제조 기술과 신약 판매 전략을 중심으로

21. <보기>의 관점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경제력, 학력 등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생산된 잉여 이익들은 사회로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 또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의 소외 계층을 위한 일에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런 사회가 되어야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도 자신의 역할을 찾아보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고 결국 바람직한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① 신약을 개발하여 약값을 정할 때 시장의 논리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② 신약 개발의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불평등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 ③ 질병을 치료하는 약과 관련한 문제는 이익만 따지지 말고 사회 복지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 ④ 제약 회사가 기업의 수익을 최우선시하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 ⑤ 제약 회사의 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신약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사회적 불평등 구조와 관련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22.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신 질환은 명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객관적인 검사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연령별, 시대별로 이상 행동을 정의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이다. 종종 정신 질환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만, 가벼운 이상 행동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커서 경우에 따라 정상 행동으로 진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 ○○ 제약 회사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조금 심한 정도의 낮가림, 수줍음의 증상을 정신 질환으로 간주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약을 만들었다. 그리고 낮가림, 수줍음을 고쳐야 한다고 홍보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였다. 광고를 통해 이를 접한 사람들은 자신의 낮가림 증상에 대해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게 되었다.

- ① ‘정상’인 사람을 ‘비정상’인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군.
- ② 무시해도 되는 증상에 대해 괜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셈이군.
- ③ 의학적인 필요성보다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약을 만들고 있군.
- ④ ‘병’의 범위를 사전적 의미에 드러난 것보다 넓게 제시하고 있군.
- ⑤ 이 제약 회사가 ‘비정상’으로 분류한 질병의 치료약들은 약효가 떨어지겠군.

23. ㉠~㉣와 바뀐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발생할                      ② ㉡: 부각되고
- ③ ㉢: 구사하고                    ④ ㉣: 확장시키는
- ⑤ ㉤: 해지하지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가의 주관적인 내면세계와 감성적 표현을 강조한 ㉠ 추상 표현주의는 1940년대와 1950년대를 풍미했던 미술 사조였다. 하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 추상 표현주의가 그림을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산물로 만들어 버렸다는 비판이 대두되었고 이런 관점에서 ㉡ 미니멀 아트와 같이 작가의 주관으로부터 벗어난 미술 작품을 창작하려는 경향이 등장하였다. 미니멀 아트에서는 작가의 주관이 작품에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품의 색채, 형태, 구성 등을 극히 단순화해 추상적으로 대상을 표현하였다. 1970년대에는 다시 1960년대의 미니멀 아트와 같은 경향에 대한 반발로 비물질화, 자연으로의 복귀, 인간적인 것의 회복 등 다양한 지향성을 지닌 미술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미술의 비물질화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경향으로는 ㉢ 개념 미술을 들 수 있다. 개념 미술에서는 예술이 하나의 관념으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미술 작품의 성격은 예술가가 택하는 대상이나 조형 방법이 아닌 예술가가 ‘예술’이라는 개념을 사고하는 그 자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미술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을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아닌 작품에 관한 예술가의 사고 자체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 역시 감상자의 정신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개념 미술에서는 작품 제작에 사용되는 매체와 작품의 외양은 중요하지 않다. 숫자, 사진, 언어적 설명 등 어떤 매체와 방식으로 작가의 사고를 나타내든 상관없다고 여긴다. 심지어 개념 미술에서는 작가의 사고가 매체를 통해 시각적으로 형상화되지 않더라도 완성된 작품과 똑같은 미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개념 미술이 우리가 직접 보는 대상이나 예술적 형식보다 그것을 통해 환기되는 사고나 의미가 미술에 있어서 더 본질적이라는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개념 미술의 입장은 미술 작품을 감각적인 형태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했던 전통적 입장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즉 개념 미술로 대표되는 미술의 비물질화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 대지 미술이라는 새로운 경향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자연을 활용하는 대규모 설치 미술인 대지 미술에서는 자연환경의 창조적 응용을 강조하여 자연과 어울려 만들어 낸 작품의 효과에 주목한다. 이는 1970년대 이전의 추상 미술이 자연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추상 미술이 멀리했던 자연으로의 복귀라는 미술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대지 미술 작품은 자연에 일시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감상자에게 사진이나 기억만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대지 미술은 미술 작품이 감상자의 정신 속에 존재한다고 한 개념 미술의 비물질화 경향과 상통한다.

1970년대에는 인간적인 것의 회복도 추구되었다. 그것은 미니멀 아트로 대표되는 1960년대의 차갑고 이성적인 형식적 완결성에 대한 반발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경향으로는 ㉤ 프로세스 아트가 있다. 프로세스 아트에서는 어떤 계산된

구성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움직임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을 통해 보여 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명확하게 계산되고 규격화된 형식미보다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과 같은 것을 연상시킴으로써 전 시대의 차가운 미술과 대비되는 인간의 따스함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형식적 엄격함으로 비인간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미니멀 아트와 대비되는 것이다.

24. 윗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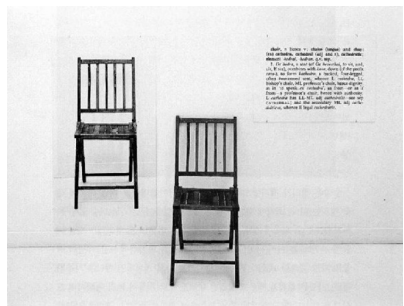
- ① 추상 표현주의의 주요 표현 기법
- ② 1970년대의 미술 작품 창작 경향
- ③ 추상 표현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
- ④ 대지 미술의 표현 방식과 미술사적 의미
- ⑤ 미술의 비물질화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경향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공통적으로 형태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다.
- ② ㉢과 ㉣은 공통적으로 예술 작품의 비물질적인 특성을 보여 준다.
- ③ ㉠은 ㉠과 달리 작가의 주관이 작품에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 ④ ㉢은 ㉠과 달리 예술 작품이 작가에 의해 임의로 창작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은 ㉡과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을 작품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다.

26. [A]를 토대로 <보기>의 작품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대표적인 개념 미술 작품 중 하나인 이 작품에서 작가는 실제 의자를 바닥에 놓고, 벽의 한쪽에는 의자 사진을,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의자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붙여 놓았다. 이 작품은 이를 통해 우리가 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 ①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의자, 사진 등의 대상보다 그것들을 통해 환기되는 의미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해.
- ② 이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의자의 실체에 관한 물음을 제기하기 위한 작가의 사고라고 할 수 있어.
- ③ 작가는 작품이 감상자의 정신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의자, 사진, 사전적 정의 등으로 작품을 구성했을 거야.
- ④ 사진과 사전을 활용해 작가의 생각을 나타낸 것은 표현 매체가 작품의 본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 줬.
- ⑤ 작가가 의자의 실체에 관한 물음을 제기하기 위해 사용한 조형 방법보다 그 실체에 관한 작가의 사고에 의해 작품의 성격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어.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뉴런은 한 개의 신경 세포 전체를 의미하는 신경계의 단위로, 자극과 흥분을 전달해 사람이 근육 등을 움직여 활동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뉴런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핵이 있는 세포 부분이 신경 세포체이고, 핵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다른 세포에서 신호를 받는 부분이 가지 돌기, 그리고 다른 세포에 신호를 주는 부분이 축삭 돌기이다.

축삭 돌기는 다른 세포에 전기 신호로 자극과 흥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축삭 돌기의 세포막은 바깥쪽이 양극(+), 안쪽이 음극(-)인데 세포막에 전지가 ㉠ 배열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세포 안과 밖에 이온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축삭 돌기의 세포막이 자극을 받아 흥분하면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경로가 열리고 (+)전하인 나트륨 이온이 농도의 경사에 따라 세포막에 ㉡ 유입되어 안쪽이 양극, 바깥쪽이 음극으로 전위가 역전된다. 즉 전지의 위, 아래가 바뀌고 전지 사이에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전류가 흐르면 이번에는 이웃한 부분이 흥분해서 다시 전위가 역전된다. 이러한 전위 역전을 ‘활동 전위’ 또는 ‘신경 충격’이라고 한다. 그렇게 전지가 뒤바뀌고 흥분부는 다시 정지 상태로 돌아간다. 마치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흥분이 전달되는 것이다. 이때 신경의 흥분은 자극의 강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크기로 이루어지는데 자극이 강해지면 흥분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빈도가 증가한다.

뉴런은 축삭 돌기를 말미집이 둘러싸고 있는 ‘유수 신경’과 말미집이 없는 신경인 ‘무수 신경’으로 나뉘는데, 유수 신경의 경우 무수 신경보다 흥분이 훨씬 더 빨리 전달된다. 그 속도는 매우 빨라서 초속 100미터에 달한다. 유수 신경에서 흥분이 더 빨리 전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축삭 돌기를 덮은 막인 말미집은 지질 즉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기름은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이동을 막음으로써 축삭 돌기가 절연 되도록 만든다. 말미집은 연속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중단이 되는데 이 중단되는 잘록한 부분을 랑비에 결절이라고 한다. 랑비에 결절에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통과시킬 수 있는 통로가 집중적으로 ㉢ 분포하고 있어서 자극으로 인한 흥분이 전달될 수 있다. 이때 흥분은 잘록한 부분에서 잘록한 부분으로 말미집을 계속 넘어 점프하듯이 전달되기 때문에 유수 신경은 무수 신경보다 흥분의 전달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도약 전도’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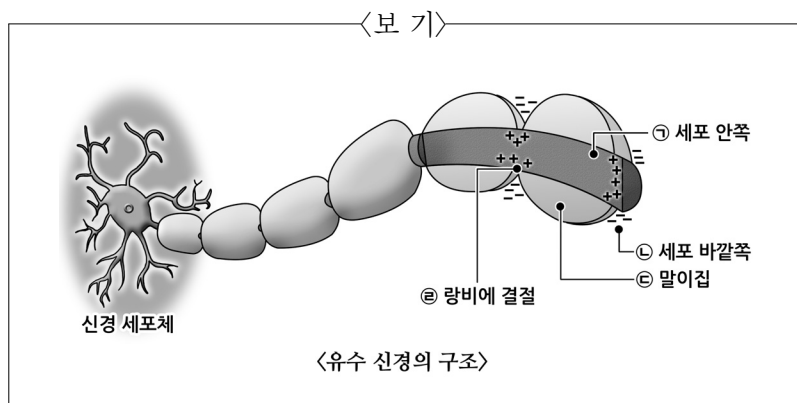
활동 전위와 도약 전도는 한 뉴런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한 뉴런의 흥분이 다른 뉴런에는 어떻게 전달될까? 뉴런의 축삭 돌기 말단은 다른 뉴런의 가지 돌기와 이어져 있고 그 접점을 시냅스라고 한다. 시냅스에는 작은 틈이 있기 때문에 신경 충격을 통해 전기 신호를 전달할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 흥분을 전달한다. 시냅스의 신경 말단 부분은 약간 ㉣ 팽창되어 있고, 그곳에는 시냅스 소포가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그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축적된다. 흥분이 전해지면 시냅스 소포는 접촉부의 세포막과 융합하여 입구를 열고 신경 전달 물질을 세포와 세포 사이의 틈으로 ㉤ 방출한다. 정보를 받는 쪽의 세포막에는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 분자가 배열되어 있고, 이것이 신경 전달 물질을 결합시켜 다음 뉴런을 흥분시킨다. 이러한 시냅스의 흥분 전달 방식을 ‘화학 전달’이라고 한다.

\* 절연: 도체 사이에 부도체를 넣어서 전류나 열이 통하지 못하게 하는 일.

27.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축삭 돌기는 다른 세포에 전기 신호로 자극과 흥분을 전달한다.
- ② 뉴런은 신경계의 단위로, 시냅스를 접점으로 다른 뉴런의 말단과 이어져 있다.
- ③ 신경에 가해진 자극이 강할수록 그 강도에 비례하여 흥분의 크기도 커지게 된다.
- ④ 시냅스에는 작은 틈이 있어서 신경 충격을 통해서도 전기 신호를 전달할 수 없다.
- ⑤ 시냅스의 신경 말단 부분에 있는 시냅스 소포 안에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축적된다.

28. 밑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은 현재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로군.
- ② ㉡은 신경의 자극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의 전하를 유지하겠군.
- ③ ㉢은 현재 신경 충격이 일어나 부풀어 오른 것이로군.
- ④ ㉣에서는 현재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고 있겠군.
- ⑤ ㉤이 양전하, ㉥이 음전하인 것으로 보아 이 세포에는 현재 활동 전위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군.

29.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복어의 독은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물질로,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 있다. 테트로도톡신은 신경의 나트륨 경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복어의 독을 섭취하게 되면 입술이나 혀에 마비가 일어난다. 중상이 심해져 몸 전체에 운동 마비가 일어나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① 시냅스에서의 신경 충격을 가능하게 하여 근육의 움직임을 마구 교란시켰기 때문이로군.
- ② 나트륨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활동 전위가 일어나지 않아 근육이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로군.
- ③ 다른 뉴런과 연결된 시냅스를 절단시켜 자극과 흥분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로군.
- ④ 정보를 받는 쪽의 세포막을 파괴시킴으로써 전류를 뉴런끼리 서로 전달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로군.
- ⑤ 흥분이 빠른 속도로 전해지게 만들어 세포막에 있는 경로에서 나트륨을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로군.

3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벌여 놓음.
- ② ㉡: 액체나 기체, 열 따위가 어떤 곳으로 흘러들.
- ③ ㉢: 각각 갈라져서 늘어섬. 또는 그렇게 함.
- ④ ㉣: 부풀어서 부피가 커짐.
- ⑤ ㉤: 비축하여 놓은 것을 내놓음.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니리] “이 애 방자야, 저 건너 녹림 숲속에 울긋불긋 오라가락하는 게 저게 무어냐?”, “아니, 무얼 보란 말씀이요? 소인의 눈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이놈아, 이리 와서 내 부채발로 보아라.”, “부채는 말고요, 미륵님 발로 보아도 안 보입니다.”, “저기 들어간다 들어가, 나온다 나와!” 방자 허허 웃고, “그게 다른 게 아니오라, 병든 술쟁이가 깃 다듬느라고 두 날개를 짝 벌리고 움쭉움쭉하는 걸, 그걸 보고 말씀이요?”, “저기 올라간다 올라가, 내려온다 내려와!” 방자 허허 웃고, “아, 그게 다른 게 아니오라, 우리 집 숫나귀를 고삐를 길게 매 놓았더니 저 암나귀를 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걸 보고 그러시오?”, “네 이놈! 내가 우리 집 나귀를 모를 리가 있겠느냐?” 방자 생각하니, 아랫사람의 도리로 옷양반을 너무 속이는 것도 저의 도리가 아니거늘, “예이, 자세히 아뢰리다. 그게 다른 게 아니오라, 이 골 퇴기 월매 딸 성 춘향이라 하옵난디, 본시 양반의 자식이라, 제 몸가짐 도를 닦아 갖추어 기생 구실 마다 하고, 백화춘엽에 글자나 생각하고, 여공, 자색과 문필을 겸하여, 오월 단오날이면 저 곳에 와서 여염집 아해들과 그네 타는 거동인가 보옵니다.”, “아니, 그럼 기생의 딸이란 말이냐? 내 한번 못 불러 볼까!”, “그렇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요.”, “저, 무슨 이유란 말이냐?”, “예, 자세히 아뢰옵지요.”

[찾은물] “춘향의 설부화용\* 남방에 유명키로, 장강의 색과, 이두의 문필과, 태사의 화순심과, 이비의 정열행을 흉중에 품어 있고, 금천 하지절색이요 만고여중에 군자오니, 황송한 말씀으로 호래착래\*는 못하리다.”

[아니리] “이 애, 네 말이 무식하다. 형산 백옥과 여수 황금이 물각유주\*라 하였으니, 각각 임자가 다 따로 있느니라. 잔말 말고 어서 불러오너라.”, “예이.”

[찾은 물] 방자, 분부 듣고 춘향 부르러 건너간다. 건드러지고 맵시 있고 태도 고운 저 방자, 체수없고\* 팔랑거리고 의뭉스런 저 방자, 서황모 요지연에 편지 전하던 청초처럼 말 잘하고 눈치 있고 영리한 저 방자, 쇠틸병치, 궁초 갖끈 맵시 있게 달아 써, 성천 통우주 접저고리, 삼승 고의, 육날신에, 수지 빌어 곱돌 매고, 청창옷 앞자락을 뒤로 젖혀 잡어매고, 한 발은 여기 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충, 충, 충충거리고 건너간다. 장송 가지 툇 꺾어 죽장 삼아서 자르르 끌어 이리저리 건너갈 제, 조약돌 덩벽 집어 버들에 얹은 피꼬리 탁 쳐 후여쳐 날려 보고 무수히 장난하다가, 춘향 그네 타는 앞에 바드드득 들어서, 춘향을 부르되 괜스리 놀라게, “아나, 였다, 춘향아!”

[아니리] 향단이 썩 나서며, “하마터면 우리 아씨 낙상할 뻔하였다!”, “허허, 사서삼경 다 읽어도 쫄쫄이 문자가 처음이라더니, 인제

열대여섯 살 먹은 처녀가 시집도 안 가고 낙태했다네!” 춘향이 그네에서 내려서며, “그 애가 언제 낙태했다 하더냐, 낙상할 뻔하였다 하였지!” 방자 허허 웃고, “이 말은 장난의 말이다만, 노모 시하 잘 계시며 향단이 너도 밥 잘 먹느냐? 그런데 큰일 났다.”, “아니, 큰일은 무슨 큰일 났단 말이냐?”, “오늘 일기 화창하여 사또 자제 도련님께서 광한루 구경을 나오셨다가, 자네들 그네 타는 모양을 보고 바빠 불러오라 하시기에 만단으로 말하여도 종시 듣지 않고 어서 불러오라고만 하니, 빨리 건너가자.”, “아니, 엇그저께 내려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른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 앉아서, 춘향이니 난향이니, 기생이니 비생이니, 종달새 삼씨 까듯, 생쥐 범씨 까듯 툇 툇 까바쳤구나?” 방자 허허 웃더니마는, “아니, 춘향이 자네, 글공부한 줄 알았더니 옥공부를 더 많이 했네그러. 그러나 네 처사가 글렀어.”, “내 처사가 뭐가 글탄 말이냐?”, “그렇지, 자과는 부지라, 자기 잘못은 모르는 법, 내 이를 테니 들어 보아라.”

[중중물] “니 그 큰 내력을 들어를 봐라. 니 그 큰 내력을 들어를 봐라. 계집아이 행실로, 여봐라, 그네를 탈 양이며는 너희 집 후원에 그네를 매고, 남이 알까 모를까 한 데서 은근히 뿔 것이지. 또한 이곳으로 말하면, 광한루 멀지 않고, 녹음은 우거지고 방초는 푸르러, 앞내 버들은 청포장 두르고 뒷내 버들은 유록장 둘러, 한 가지는 찢어지고 또 한 가지는 늘어져, 준비춘향을 못 이기어서 흔들흔들 너울거리고 춤을 출 제, 외씨 같은 네 발 맵시는 백운 간에 해뜰, 홍상 자락은 펄렁, 선웃음 뺨긋, 입속은 해뜰, 도련님이 너를 보시고 불렀지, 내가 무슨 말을 하였다는 말이냐? 잔말 말고 건너가자.”

[아니리] “이 애가 점점 더 미쳐 가는구나. 초면 남자 전갈 듣고 따라가기 무슨 식이며, 내 비록 미천하나 기안책명한 일\* 없고, 여염집 아이로서 초면 남자 전갈 듣고 따라갈 일 만무하니, 니나 어서 건너가거라.”, “아니, 기어이는 가자고 아니하나, 오늘 이 기회가 시호시호부재재라\*. 남편을 얻을라며는 우리 도련님 같은 서울 양반을 얻지, 시골 무지랭이를 얻을라는가?”, “허허, 미친 놈. 남편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 “그렇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라 하는 것이 다 그 고을 산 지형대로 태어나는 법이니,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일러 줄 터니 너 한번 들어 볼래?”

[찾은 물] “산세를 이르께 네 들어라, 산세를 이르께 네 들어.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나며는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높이 솟아 뾰족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 있고, 경기도를 올라 한양터를 보면 절운동 높고 백운대 뿔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동작이 수기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이라. 양반 근본을 이룰진대, 병조 판서가 동성 삼촌이요, 부원군 대감이 당신 외삼촌이요, 신 남원 부사가 어르신이라. 너를 불러 아니 가면 내일 아침 조사 끝에 너의 노모를 잡아다가, 책방 단장 앞에 난장 형벌에, 주룻대 방망이, 굵은 뼈 부러지고 잔뼈 으스러져, 열게미 채궁기 진가리 새듯 그저 살살 썰 터이니, 올 테며는 오고 말 테면 말어라, 거드럭거리고 나는 간다.”

- 작자 미상, 「춘향가」 -

- \* 설부화용: 눈처럼 흰 살갓과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
- \* 호래착래: 불러오게 하거나 가서 데려옴.
- \* 물각유주: 물건마다 다 임자가 있다는 의미.
- \* 체수없고: 인격이나 체신이 없고.
- \* 기안책명한 일: 기생에 이름을 올린 일.
- \* 시호시호부재재라: 평생 동안 다시 없을 좋은 기회라.

31. 윗글에 드러난 ‘방자’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춘향이가 기생의 딸이기는 하지만 함부로 오라 가라 할 수 없는 인 물이다.’
- ② ‘이 도령의 부름에 응하여 부부의 연을 맺게 되면 춘향에게도 좋은 일이다.’
- ③ ‘내가 이 도령에게 춘향이에 대해 말했다고 향단이가 의심하는 것이 억울하다.’
- ④ ‘춘향이가 이 도령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춘향 모가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 ⑤ ‘이 도령이 춘향이를 부르게 된 데는 밖에 나와서 그네를 탄 춘향이 책임도 있다.’

32. <보기>는 판소리 사설의 특징이다. ㉠~㉣ 중 윗글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보 기>

판소리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드러난다. ㉠ 한 어구가 3자 내지 4자로 반복됨으로써 리듬감을 조성하고, ㉡ 의태어나 의성어를 사용하여 인물의 행동을 실감 나게 전달하는 부분이 자주 나오고, ㉢ 서술자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인물의 대화와 상황의 서술을 모두 담당하여 내용이 진행되며, ㉣ 관객들에게 말을 걸고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무대와 객석의 거리감을 좁힐 뿐만 아니라 ㉤ 한자어와 비속어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판소리에서 창자는 고수의 북 장단에 맞추어 노래로 부르는 창(唱)과 이야기하듯 말로 하는 아니리를 교차하여 반복한다. 또한 창을 하는 도중에 장단은 그대로 가면서 아니리처럼 말로 하는 ‘도섭’을 활용하기도 한다. 창은 대체로 서사를 지연시키면서 장면을 확장하여 정서적 긴장과 감흥을 유발하는 구실을 하며, 아니리는 사건의 흐름이나 장면의 전환 등 주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구실을 한다. 이렇게 창과 아니리가 교차 반복되는 구조는 창에서 형성된 정서적 긴장이 일상적 어투인 아니리에서 이완되는 미적 체험을 반복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

- ① 창자는 이도령과 춘향에 관한 노래와 이야기를 번갈아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고수는 북으로 창자의 노래에 장단을 맞춰 주겠군.
- ② 방자가 다양한 산과 여러 벼슬을 언급하여 도련님에 대해 말하는 부분은 서사를 지연시키면서 장면을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로군.
- ③ 방자가 춘향이와 향단이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밝히는 부분에서는 다소 이완된 분위기로 판소리가 진행이 되겠군.
- ④ 창자가 창을 하다가 도섭을 활용하여 이도령이나 춘향의 말을 직접 인용하게 되면, 이완되었던 관객의 정서가 다시 긴장되는 현상이 생겨나겠군.
- ⑤ 방자가 춘향이를 찾아가는 장면과 그네 타는 춘향이를 본 도련님의 부름을 전하는 장면을 통해 관객들은 정서적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는 미적 체험을 하게 되겠군.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화개(花開) 장터에서 주막을 꾸리며 살아가는 옥화는 아들 성기의 타고난 역마살을 없애 주고픈 마음에 쌍계사에 보내 생활하게 하고 장날에만 집에 들르게 한다. 어느 날, 체 장수 영감이 딸 계연을 데리고 와 주막에 맡기고 장삿길을 떠나고, 옥화는 계연과 혼인시켜 성기의 역마살을 막아 보려는 생각에 둘이 가깝게 지내도록 한다. 그러나 얼마 후 계연은 체 장수 영감을 따라 떠나게 된다.

“오빠, 편히 사시오.”

이렇게 두 번째 하직을 하는 순간까지도 계연의 그 시뻘건 두 눈은 역시 성기의 얼굴에서 그 어떤 기적과도 같은 구원만을 바라는 듯하였고, 그러나 성기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 뻔하던 것을 겨우 버드나무 가지를 움켜잡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

계연의 ㉠ 시뻘겋게 상기된 얼굴은 옥화와 그녀의 아버지가 그네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대인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향라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뼈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雨水), 경칩(驚蟄)도 다 지나 청명(淸明)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때였다. 주막 앞에 늘어진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 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 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복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체 장수 영감은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 와 이 화개 장터에 하룻밤을 놓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왼쪽 귓바퀴 위의 같은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A]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찟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놀 줄이야 알았다.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 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뻘히 들여다나 보는 듯이 조잘대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이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디 어찌겠냐.”

<중략>

그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갯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

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에 ㉞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켜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㉟ 옛판 하나만 맞춰 주.”

하였다.

“.....”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지도 다시 한 보름이나 지나 빠꾸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려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 장터 삼거리 길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옥양목 고의적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질끈 동여매고 난 성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옛판을 걸빵해서 느직하게 엉덩이 즈음에다 걸었다. 윗목판에는 새하얀 가락엿이 반 넘어 들어 있었고, 아랫목판에는 팔다 남은 ㉠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방물이 좀 들어 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도 함께 갈리어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화갯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례,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체 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모퉁이 고갯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환히 장터 위를 굽이돌아 구례 쪽을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천천히 옮겨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갈 무렵 하여서는 그도 제법 육자배기 가락으로 ㉡ 꽃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

- 김동리, 「역마」 -

34. <보기>를 참조할 때,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소설에서 제시되는 시간이나 공간은 진행 중인 사건의 배경으로 설정되거나 과거의 특정 상황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데, 이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작중의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고,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심리를 추측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또한 작중의 사건 또는 상황 전개에 개연성을 부여하는가 하면 사건과 사건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기도 한다.

- ① 중심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적 배경을 꽃의 개화를 연상하게 하는 ‘화개’로 설정하여 등장인물 간의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주제의식을 암시하고자 한 것 같아.
- ② 장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장터’를 공간적 배경으로 제시함으로써 인물 간의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 개연성을 부여해 주는 것 같아.
- ③ 과거와 현재 상황의 연결 고리가 되는 ‘서른여섯 해 전’이라는 시간을 제시함으로써 작중 사건들이 시간적 간격을 뛰어넘어 인과적으로 맺어져 있음을 보여 주는 것 같아.
- ④ 한껏 싱그러운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을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상실감을 딛고 새로운 삶의 길을 택한 주인공의 행적과 관련하여 작중 분위기를 살려 주는 것 같아.
- ⑤ ‘세 갈래’로 나 있는 길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여 인물들의 엇갈리는 삶의 길을 보여 줌으로써 주제의 형상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아.

35. <보기 1>은 [A] 부분을 시나리오로 각색한 내용이다. <보기 2>를 각색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라고 가정할 때, ㄱ~ㄴ 중 <보기 1>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S# 〇〇. 옥화의 집 방 안

옥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속 시원히 말해 주마. 어미 맘속이나 알고 가거라. 체 장수 영감은 네 외조부였다.

성기: .....?

옥화: (떨리는 목소리로) 남사당을 꾸며 갖고 와서 꼭 하룻밤 놓고 갔다는 네 외조부 말이다. 계연이는 내 배다른 동생이구..... 계연이도 이 어미처럼 왼쪽 콧바퀴 위에 사마귀가 있지 않더냐?

성기: .....

옥화: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디 어찌겠냐, 제발 어미를 야속타고 원망치 말아다오. (하며 성기의 뺨만 남은 손을 눈물로 적신다.)

<보기 2>

- ㄱ. 작중 상황을 크게 변형시키지 말고 가급적 원작의 흐름에 충실하도록 할 것
- ㄴ. 비유적 표현을 통해 옥화의 안타까운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것
- ㄷ. 옥화의 말에 충격받은 성기의 심경을 침묵으로 드러낼 것
- ㄹ. 인물 간의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를 대사에 직접적으로 노출할 것
- ㅁ. 반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옥화의 내면이 드러나도록 할 것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36. 전후의 사건 전개로 보아,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성기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계연의 내면 심리를 나타내 줌.
- ② ㉡: 성기가 자신의 거취에 대해 결심이 섰음을 보여 줌.
- ③ ㉢: 성기가 택한 떠돌이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 줌.
- ④ ㉣: 인물 간에 벌어질 새로운 사건의 방향을 예고해 줌.
- ⑤ ㉤: 성기가 극심한 내적 갈등에서 벗어났음을 보여 줌.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昨過永明寺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暫登浮碧樓
텅 빈 성엔 조각달 떠 있고	城空月一片
천 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石老雲千秋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麟馬去不返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서 노니는가	天孫何處遊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부노라니	長嘯依風磴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山靑江自流

- 이색, 「부벽루」 -

(나)

데 가는 데 각시 본 듯도 흐터이고,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하야 이별(離別)호고  
 히 다 더 저믄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얌 즉흥가마는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식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흐듯쎄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싱각호고 니러 안자 헤여히니  
 내 몸의 지은 죄 피그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호며 사름이라 허믈호라**  
 설워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싱각 마오 띠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뵈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믈 그튼 얼굴이 편호실 적 몇 날일고**  
 춘한(春寒) 고열(苦熱)은 엇디하야 디내시며  
 추일(秋日) 동천(冬天)은 뒤라셔 뵈섯논고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뵈 네와 굶티 세시논가  
 가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논고  
 님 다히 소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너일이나 사름 올라  
**내 믿음 둘 디 업다 어드러로 가쟝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놓픈 뵈히 올라가니  
 구름은 쿠니와 안개논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리(千里)를 브라보라  
 (중략)  
 어와 허사(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브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들어야 쿠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 -

\* 부벽루: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 있는 정자.  
 \* 천손: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을 가리킴.

3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③ (나)는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활용해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대화식 구성을 통해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38. (나)를 <보기>의 감상 요소에 따라 감상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속미인곡」은 조선 선조 때 정철이 유배지에서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작품을 잘 읽고 다음의 감상 요소에 따라 감상한 내용을 적어 볼까요?

감상 요소	근거 시어나 시구	감상한 내용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생각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
	믈 그튼 얼굴이 편호실 적 몇 날일고	㉡
자신에 대한 화자의 생각	하늘히라 원망호며 사름이라 허믈호라	㉢
	내 믿음 둘 디 업다 어드러로 가쟝 말고	㉣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

- ① ㉠: 자신을 아껴 주던 옛날과 달리 임금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나타내고 있군.
- ② ㉡: 임금을 모셨던 화자가 유배를 당한 상황에서도 임금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군.
- ③ ㉢: 유배를 당하게 된 일을 억울해하며 자신을 포함한 다른 신하들을 원망하고 있군.
- ④ ㉣: 임금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처지라 소식조차 알지 못하는 막막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군.
- ⑤ ㉤: 죽어서라도 임금을 따르며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겠다는 화자의 다짐을 나타내고 있군.

39.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화자는 외적 풍경을 조망하고 있다.
- ② ㉠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③ ㉡은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화자가 무상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과 달리 ㉡에서 화자는 자신의 소망을 방해하는 존재들과 맞닥뜨린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폐 질환으로 찾아온 인옥이 수술을 받게 해 달라고 애원하지만, 회기는 상태가 너무 나빠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며 냉정하게 거절한다. 인옥은 회기에게 기계처럼 냉정하고 인간미가 없다고 말하며 돌아간다. 얼마 후 인옥의 남편 상현이 회기를 찾아와 인옥의 수술을 거절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한다.

상현: (눈물을 글썽거리며) 아내는 항상 나를 무능하다고 빈정대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런 아내에게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바보였죠…….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회기: 선생은 너무 의심이 많으시군.

상현: 내가요? 천만에!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진 않았죠. 도리어 알고도 모르는 척했을 뿐입니다.

회기: (미심쩍게) 내가 알기엔 부인께서는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한사코 고집하는 것을…….

상현: 아닙니다. 그건…….

회기: (조용하나 위엄 있게) 그렇지만, 내버려 두면 부인께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상현: (냉혹하게) 별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회기: (몽클 불쾌감이 솟으며)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요?

상현: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게죠.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것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회기: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상현: (반항적으로) 심한 건 내 아내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을 합니까? 그것도 공으로 한다면 또 모르지만, 돈 쓰고 저 죽고 하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선생님! 그러니 나는…….

회기: (외치며)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소…….

㉠ 이 말이 떨어지자 금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기를 쳐다본다.

상현: 뭐라구요?

회기: 아내가 죽어 가도 내버려 두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요?

상현: (처음에 지냈던 겸손과 비굴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참견 마세요! 내 처를 내가 죽이건 살리건 무슨 걱정이요! 나 살고 남도 있지! (불쑥 일어서서 손가방을 쥐며)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하며 문을 탁 닫고 나가 버린다.)

회기는 감전(感電)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고 금숙은 회기를 주시하고만 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회기: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며) 미스 정!

금숙: 예?

회기: 아까 그 환자의 주소 알지?

금숙: 예, 접수부를 보면…….

회기: 좋아! 그럼, 속달 우편으로 보내요.

금숙: ㉡ 예? (하며 가까이 온다.)

회기: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금숙: (놀라운 표정으로) 아니, 그렇지만…….

회기: (속삭이듯) ㉢ 자신은 있어! 그 대신 수혈(輸血)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잊지 말아! 알겠어?

금숙: (㉣ 빙그레 웃으며) 선생님, 웬일이세요?

회기: ㉤ 응? (가볍게 웃으며) 이번 환자는 꼭 살려 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금숙: 왜요?

회기: (분노를 띠며) 그 친구에게 살해당할 바엔 내가 맡아서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금숙: (흘끗 쳐다보며) 기계가 노하셨네요…….

회기: 잔소리 말고, 편지나 어서 써!

금숙: ㉥ 예! (하며 제자리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회기는 상현이가 두고 간 담뱃갑을 발견하자, 담배 한 가치를 빼더니 물끄러미 바라본다.

회기: (㉦ 혼잣소리로) 담배는 포장도 중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

금숙: (편지를 쓰다 말고) 그 담배만은 진짜겠지요……. 공장에서 직접 나왔을 테니까…….

회기: 그렇지! (하며 라이터 불을 켜다.)

- 차범석, 「성난 기계」 -

40.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현'은 비정한 말을 태연스럽게 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 ② '상현'은 자신을 나무라는 '회기'와 '아내'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 ③ '상현'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기'가 지시에 따르도록 종용하고 있다.
- ④ '회기'는 '상현'이 스스로 내린 결정을 번복할까 봐 조바심하고 있다.
- ⑤ '회기'는 마음에 없는 말을 던져 가며 '상현'이 반성하도록 애쓰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할 때, ㉠ 부분을 '금숙'의 방백으로 처리한다면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연극에서 방백은 암묵적으로 관객에게만 들리고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도록 약속된 대사로서, 관객들로 하여금 등장인물들의 의도나 생각을 손쉽게 파악하도록 해 준다.

- ① 선생님도 저런 인간적인 면을 갖고 계시는구나.
- ② 선생님은 지금 자신이 한 말에 대해 후회하고 계실 거야.
- ③ 선생님은 내 입장이 어떤지 뻔히 알고 계시면서 왜 저러실까?
- ④ 선생님이 오늘따라 왜 이랬다저랬다 갈피를 잡지 못하시는 걸까?
- ⑤ 선생님은 왜 수술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항상 안 된다고만 하실까?

42. <보기>를 바탕으로 ㉡~㉦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연극에서 배우의 대사나 어투, 그리고 표정은 상대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 심리, 태도 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어, 관객으로 하여금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합니다.

- ① ㉡는 말과는 달리 웬지 자신 없어 보이는 화자의 태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 ② ㉢는 상대에 대한 자신의 신뢰가 확고한 척하는 표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 ③ ㉣는 상대의 물음을 의외의 것으로 받아들여 놀라는 심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 ④ ㉤는 ㉡와 달리 상대의 의도를 이해했음이 드러나도록 말해야 합니다.
- ⑤ ㉥는 상대가 듣지 못하도록 조심해서 말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마음 후줄근히 시름에 젖는 날은  
동물원으로 간다.

사람으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짐승에게라도 하소해야지.

난 너를 구경 오진 않았다  
뺨을 부비며 울고 싶은 마음.  
혼자서 숨어 앉아 시(詩)를 써도  
읽어 줄 사람이 있어야지  
쇠창살 앞을 걸어가며  
정성스레 써서 모은 시집을 읽는다.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  
문득 돌아다보면  
사방에서 창살 틈으로  
이방(異邦)\*의 짐승들이 들여다본다.

<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고  
속삭이는 소리……

무인(無人)한 동물원의 오후 전도(顛倒)된 위치에  
통곡(痛哭)과도 같은 낙조(落照)가 물들고 있었다.

- 조지훈, 「동물원의 오후」 -

(나)

영화(映畫)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 떼들이

㉡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렬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떼고

㉢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떼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 이방: 인정, 풍속 따위가 전혀 다른 남의 나라.

4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과거 회상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 ③ 특정 공간에서의 체험을 통해 떠올린 상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으로부터 느낀 정서를 주제 의식과 관련짓고 있다.
- ⑤ 외부 세계에서 내면으로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지훈의 「동물원의 오후」는 1959년에 나온 시집 『역사 앞에서』에 수록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지만, 내용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시의 화자는 마음대로 시를 쓸 수 없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이다. 화자는 나라를 잃은 비애를 지니고 있으며, 나라를 잃은 처지를 절실히 자각하며 참담한 심정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심정은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지식인의 고뇌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뺨을 부비며 울고 싶은 마음’은 화자가 지닌 비애감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
- ② ‘혼자서 숨어 앉아 시(詩)를 써도’는 화자가 마음대로 시를 쓸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
- ③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
- ④ ‘이방(異邦)의 짐승들이 들여다본다’는 화자의 고뇌가 화자 주변 존재들의 관심에 의해 해소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
- ⑤ ‘통곡(痛哭)과도 같은 낙조(落照)가 물들고 있었다’는 울고 싶은 화자의 참담한 심정을 감각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

45. ㉠~㉣ 중에서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시구를 찾아 바르게 짝 지은 것은?

<보 기>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 스크린 속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구와 ㉢ 관객석의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구를 대조하여 현실 속에서 화자가 느낀 체념과 절망을 부각하고 있다.

- |   |   |   |  |   |   |
|---|---|---|--|---|---|
|   | a | b |  | a | b |
| ① | ㉠ | ㉡ |  | ② | ㉢ |
| ③ | ㉠ | ㉣ |  | ④ | ㉡ |
| ⑤ | ㉢ | ㉣ |  |   |   |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